

## 콜롬비아, 평화를 논하다

김달관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쿠바 하바나에서 콜롬비아 정부 협상단과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Fuerza Armada Revolucionaria de Colombia) 협상 대표는 최근 6개월에 걸친 ‘평화과정’(Proceso de Paz) 협상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화과정은 콜롬비아에서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무장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혁명단체 간 협상의 결정체이다.

20세기 콜롬비아의 역사는 무장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1959년 쿠바혁명이 성공하면서 1960년대 콜롬비아에서 여러 무장 혁명 단체(FARC, ELN, EPL, M-19)가 출현했고, 1970년대에 마약세력이 등장했으며, 1980년대 보수 세력의 우익민병대(Paramilitar)가 출현했다. 이런 과정에서 1990년대에 이르면 혁명세력은 콜롬비아 남부지역을 지배했고, 우익민병대는 북부지역을 지배했으며, 정부는 중부지역과 주요도시를 지배하게 되었다. 혁명단체, 마약세력, 우익민병대 간의 무장 갈등이 확대되면서 2000년 미국은 ‘콜롬비아 계획’(Plan Colombia)이라는 정책 하에 무장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2002년 Uribe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치안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콜롬비아에서 무장 갈등은 정상화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FARC 등 소수의 혁명 단체와 무장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려는 노력이 ‘평화과정’이다.

사실 평화과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벨리사리오 베탕쿠르(Belisario Betancur, 1982~86) 대통령 재임 때부터 시작되어, 1989년에



콜롬비아 정부 협상단과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Fuerza Armada Revolucionaria de Colombia) 협상 대표. 2013년 5월 26일. 아바나.Omar Nieto Remolina 촬영.

는 무장 혁명 단체인 M-19를 해체시키고 정치단체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안드레스 파스트라나(Andrés Pastrana, 1998~2002) 대통령 시절에 FARC와 정부가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평화과정은 재개되었다. 현재 평화과정은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해 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되었다.

5월 26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9차 협상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새로운 콜롬비아 농촌을 향하여; 통합적 농촌 개혁’이라는 문건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한 협상의 부분적 성과이다. 비록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FARC가 주장한 6개 의제 중에서 첫 번째 의제인 토지와 지방발전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역사에서 평화를 진척시키는 역사적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아바나 합의는 농업과 농촌 현실의 급진적 변혁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FARC의 요구가 농민 권리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FARC는, 그동안 무장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민의 강제 이주, 약탈과 희생을 인정하는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상실한 토

지를 회복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토지 접근과 사용, 비생산적 토지의 운용, 소유권의 제도화에 관한 것이다.

- 대농장 라티펀디오 문제

콜롬비아 정부는 라티펀디오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업개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뜻을 밝혔다. 분배할 농지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개혁에서 라티펀디오는 제외한 것이다. 농지를 분배 받을 농민의 수에 대해서는 양측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FARC는 무장 갈등으로 이주하거나 농지를 빼앗긴 농민은 약 25만 명, 농지가 황폐화되거나 포기한 농민은 7~8백만 명으로 추산했다.

- 평화를 위한 농지기금: 농지 기금을 조성하여 농지가 없는 농민의 토지 접근과 소유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 농업 보존 지역: FARC는 농업 보존 지역에서 농민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9백5천만 헥타르라고 언급했다. 즉, 이것은 농업 보존을 위한 절대농지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콜롬비아 평화과정은 미국, 쿠바,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칠레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오는 6월 11일 제10차 평화협상이 재개되고, 그때 두 번째 의제인 정치참여를 논의할 것이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불법작물 대체, 식량과 영양 안전, 합의 확인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달관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